



인간의 본성과 지성

수필가 최규자

인간(人間 : man)이란 규범적 내지 가치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동물과 대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생물학적 분류로는 포유류(哺乳類 : Mammalia)에 속한다. 즉 신(神) 또는 동물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한다.

<인간은 좀 교만하게 자신(自身)들을 지성과 예지의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인간들이란 지구라고 하는惑星(惑星) 위에 사는 동물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종류의 동물인 한편, 다른 존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종류의 동물이다.>

이 말은 화성인(火星인) 중에 철학적인 생물학자가 있다고 할 때, 그가 지구상의 동식물에 관한 보고서를 쓴다면 최종장(最終章)의 첫머리에 쓸른지도 모를 그러한 문구이다. 우리들은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정적으로도, 혹은 본능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갖는 존재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이 다른 세계로부터 온 방문자에게 대해서도 같게 생각될 수 있는 공평하고도 폭넓은 인

간관(人間觀)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류를 지칭하는데, 라틴어로 homo(man) + sapiens (wise)의 합성이다. 사람속(屬 : Homo)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현대 인류에 대한 학명(學名)이다.

그러나 위에 쓴 것과 같이, 가공(架空)의 화성인(火星인)이 말한 것 같은 인간에 관한 성찰(省察)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성찰에 비추어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령 인간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면 미래까지를 달아보아야 한다. 또한 지상의 생명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미 행한 것, 또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일, 그리고 장차 지구 이외의 생명에 대해서 행할 일들의 가치, 이를테면 성과나 선악(善惡) 등을 추측해 보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것일 일이다.

이러한 고찰을 할 때에는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 볼 때 작은 언덕이 편편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시적인 정열은 기필코 그 중요성을 잃고 만다. 이에 반해서 참으로 항구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

일들은 한정된 견지(見地)에서 바라보는 경우보다 훨씬 명료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本性)과 그 진보에 관하여서는, 인간은 그 처음에 일반적으로 생존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앞날이 결코 밝다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인간은 수(數)에 있어서도 희귀한 종류의 동물이었고, 야수(野獸)를 피하여 나무에 기어오르는 것도 다람쥐나 원숭이에 비하여 민첩하지 못하며, 추위에 대해서도 몸을 보호해 주는 피부에 털이 적고, 특히 유아기(幼兒期)가 길다고 하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동물과 경쟁해서 우세하게 식물(食物)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처음부터 출발점에 있어서 모두 불리한 조건들이었지만 단 한가지 장점은 그 두뇌가 발달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두뇌가 발달되었다는 장점은 차차 축적적(蓄積的)인 것이 뚜렷해지고, 드디어는 쫓겨 나가는 도망자로부터 지구상의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는 여건으로 바뀌어져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처음에는 어떠한 단계들을 거쳤는가 하는 것은 유사이전(有史以前)의 일로서 지금으로서는 다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마치 원자력의 이용이 갖는 위험과 비견할 수 있는 그 질(質)에 있어서는 유사한 위험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은 추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고 또 인간의 식사를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굴의 입구에서 불을 피워놓음으로써 수면을 하는 동안에 맹수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었다.

또한 인간은 영리하여 창(槍)이나 화살을 발명하고,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진 동물들, 맘모스(mammoth) 등을 사로잡고, 그들을 광폭하게 괴롭히기까지 되었다. 드디어 인간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육하고 가축으로 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사시대(有史時代)의 여명기(黎明期)에 농경(農耕)의 유익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에게 언어(言語)의 역할은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획득하기에 이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획득물은 역시 언어(言語)였다. 언어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동물적으로 소리치고 일종의 신호나 기호로 사용하던 것이 차차 발달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쓰이어지는(書) 언어 즉 문자(文字)는 처음에는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情報)를 나타내는 그림이 차차 발전되어 형(型)으로 잡혀진 것이다. 언어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이점(利點)은 그것이 경험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한 세대에서 익힌 일을 그대로 다음 세대로 전달해 주는 일이 가능해져서 계승적(繼承的)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넓혀 주게 되었다. 언어보다도 문자로 기록하게 되자 지식의 저장고를 만든 결과가 되었고, 드디어는 기억을 기록이라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개개의 인간들이 경험한 것을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즉 기록하는 수단이었다. 한편 점차 두뇌의 능력도 생물학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유전적 능력에 진

보가 일어난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회고해 보면 이와 같은 시대도 약 50만 전에 이미 끝났다. 그 시대 이후에는 선천적인 지성(知性)이 증대되기는 하였다하여도 엄밀히 말하면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실로 인간이 진보되는 것은 전통과 교육에 의하여 계승되고, 후천적인 획득기능에 의존하였다.

그러면 인간의 지성(知性)과 본능의 싸움은 어떠했는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조건들은 유사이전(有史以前)의 여러 단계와 시대에서는 어떤 일정한 의식적인 목적없이 채워졌다. 그렇지만 일단 기초적 조건이 채워지면 지식이나 지배력으로 끊임없이 전진이 계속되어 왔다.

과거 5세기에 있어서는 그 전진은 그 이전에 기록된 역사와 전 기간에 의한 것보다도 더 큰 눈부신 속도로 발전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고민의 하나는 인간의 사고습관(思考習慣)으로 기술은 급속히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그 결과로 기능의 증대함에 반하여 예지는 턱없이 쇠퇴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와 같이 인간이 존속하기에 매우 어려운 역경속에서 생존해 나가면서 매우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여러 가지의 유용한 기능을 익히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본능이나 습관은 과거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의 고통과 투쟁에 의하여 형성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기근(饑饉)이

나 홍수, 화산(火山)의 폭발과 같은, 인간에게는 하등의 원인이 없는 대자연의 조화와 위험과도 맞붙어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옛날에 기근이 왔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가능하였는가 하는 것은 《구약성서》의 《창세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홍수에 대해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중국사(中國史)의 역명기(黎明期)에 중국인은 황화(黃河)에 따라 제방을 쌓고, 서아시아에서는 노아(Noah)의 이야기에 보이는 것처럼 홍수를 막는 최상의 방법은 유덕(有德)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원래 노아는 성서에 나오는, 믿음이 좋았던 헤브라이 족장(族長)이다. 홍수 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ark)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 각 한 쌍씩을 태워 난을 피했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Noah's Ark)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화산의 분화(噴火)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a)의 도시가 파괴되는 이야기속에도 이런 생각의 기초에서 문학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인과 서아시아인에 의한 위의 두 가지 형(型)의 이론은 강력하게 대립하면서 존속되어 왔는데 그러나 차차 중국인의 생각이 우월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가지 정세에 의하면, 전통적인 의미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덕(有德)한 생활만이 제방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시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간의 지성과 본능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인간에게는 하등의 원인이 없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협을 인간이 극복해감에 따라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본능적이고도 감성적인 체질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후천적인 체질을 수단으로하여 이전의 여러 시대를 살라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결국 인간은 이러한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강인성과 정열적인 결의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인간은 역경에 대처하는 기민한 경계와 주의력을 지녀야 하고 공포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위협에 직면하는 불퇴전의 용기와 결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옛날에 여러 가지로 닥쳐오는 그 위협을 인간은 단련된 습관이나 정열의 체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충분하고 적절한 대답을 구할 수가 없다. 인간은 옛날에 사자나 호랑이에게 향하고 있었던 적의(敵意)나 시의

심(猜疑心)을 이제는 불행하게도 같은 인류에게 향하게 되고 말았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된 기능의 대부분이 사회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모든 인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나 자기에게 협력하는 단체집단 이외의 인류에게 향해서 끊임없이 적의(敵意)를 불태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종종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단결력과 조직화된 전쟁을 통해서 몇 세기동안에 걸쳐 사회적 협력의 필요성을 통감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과거의 투쟁이 인간의 내부에서 자라게 한 본능적 흉악함과 시의심이 양립되어 온 것이다. 유사시대 시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성이 창조한 기능이 끊임없이 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이에 반하여 인간의 본능이나 감정은 모두 야성적이고 원시적인 세계에 맞게 형성된 형태인 체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